

축산농가의 아픔



홍경표

오리사육회원(충북지회)

요새 사회적으로 AI이니 구제역이니 몇 년째 해가 바뀌어도 끝도 없이 가끔씩 잇을만하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발병이 되었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병 같으면 때려잡기라도 하건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막아보려고 축산농가서는 안간힘을 쓰고 정부서도 특히 방역당국에서 야단들이다. 발병이 되면 역학조사부터 시작해서 농가에 불이익까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충북 하면 십년동안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재작년부터 발병이 되어 이따금 터지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서는 때로는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 예컨대 한편에서 마치 사람으로 치자면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여러 치료약이 있지만 의사들이나 암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몸에 이로운 면역세포까지 희생을 시킨다고 한다. 마치 그런 현상이 축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을 하게 되면 배설물에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를 막기 위해 비싼 깔짚을 깔고 발효제를 뿌리고 동물에게 발효제를 먹이고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모자라 이동금지에 거리제한 금지구역 설정하고 몇 달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입식을 제한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그런 과정에서 AI 바이러스가 사멸되었는지 분변채취를 수 없이 해간다. 바이러스가 사멸되면 그만이지, 지금은 입식제한이 풀리고 끝나고 해도 법에 없는 분까지 치우라고한다.

그런데 동물이 잘 자라려면 깔짚이 10cm 이상 쌓여야만 추위도 덜타고 잘 자란다. 또 동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도 언급했지만 발효제를 먹이고 깔짚에도 뿌려야 한다. 동물이 잘 자라게 하는 이로운 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사육할 때 그런 이로운 효소제 같은 것을 먹이고 뿌리라고 권장을 하고 동물이 잘 자라게 냄새제거도 하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축사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쪽에서는 방역을 하여 모든 균이니 미생물이니 모두 다 사멸시키고 깔짚 속에 이로운 균까지 분을 퍼내라고 한다.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는 얼토당토한 지시를 내리니 농가들만 울상이다.

사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방역이 제일 잘 된 축산과학원에서도 막지 못하고 AI에 걸리는 실정인데 모든 걸 축산농가에게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억울한 노릇이고, 반드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다.